

기업윤리 브리프스

기업가치를 높이는 청렴경영 가이드

사회적
금융

11

2019 November | VOL. 83



Cover Story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을 의미합니다. 현대 금융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재활을 돕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 사회적금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2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는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지난 7월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기업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보는 임팩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금융의 개념과 국내외 사회적금융 우수 사례 및 동향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C · O · N · T · E · N · T · S

- 01 **전문가코칭**
사회적금융 (이종수 대표, 한국임팩트금융)
- 02 **사례돌보기**
돈 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금융
- 03 **보고서리뷰**
사회적금융의 나아갈 길
-선진국 사회적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 04 **ISO 37001 도입해봅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5 **국내외 동향**
- 06 **국내외 행사**
- 07 **문화 속의 기업윤리**
『마진 콜 - 24시간, 조작된 진실』
- 08 **지식 1G**
사회적금융 관련 용어 소개
- 09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 10 **독자퀴즈**



한국임팩트금융
대표
이종수

Q. 사회적금융이란 무엇이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회문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청년실업, 고령화, 저출산, 지방소멸, 환경파괴, 사회적 갈등과 분열 등 많은 사회문제가 매일 매일의 지면을 장식합니다. 정보통신,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의 발전은 바람직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문제의 골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가 5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노력하지만 날로 심화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세금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부족한 자원과 함께 사회문제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사회문제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이제는 전통적인 복지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문제들이 경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복지와 시장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듯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는 복지'와 함께 재원이 선순환되면서 사회문제



전문가 코칭

사회적금융



를 해결하는 ‘사회투자 접근방식’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회투자방식은 사회문제를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아울러 적정 수익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선진국의 경험은 이러한 방식이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금융은 이러한 사회투자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재원을 공급하는 금융입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임팩트금융이라고도 불리는데, 자본과 기업가정신을 동원하여 사회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마이크로크레딧, 크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임팩트투자, 지역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회 가치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는 본격적인 사회적은행들이 대폭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Q. 바람직한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년 3조 원 이상을 사회공헌에 지출하고 있고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사회공헌 지출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래의 단순한 기부방식에서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활동에 사회적인 가치가 동시에 묻어나오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가치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사회공헌에서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 기업다운 방식으로 사회공헌의 축이 변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회적인 기부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에 시장이 융합되는 사회투자,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이 보다 기업의 문화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들과 함께 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회공헌의 차원에서 재원을 사회적금융에 공급하고, 기업이 보유하는 장점인 생산, 마케팅, 유통 등 경영의 방법론을 사회적금융기관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효율적으로 사회적금융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례돋보기

돈 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금융

- 『무한도전』으로 유명한 MBC 김태호 PD는 최근 흥미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같이펀딩』이다. 출연자가 모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와 그 이유를 소개하면, 참여를 원하는 시청자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후원하는 식이다. 첫 펀딩은 배우 유준상이 제안한 태극기함 제작이었다. 해당 펀딩은 오픈된 지 10여 분만에 목표 금액인 815만 원을 달성했다. 1차 펀딩 달성률은 무려 4110%. 고도화된 SNS 플랫폼과 유의미한 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착한 투자, 착한 금융의 시대를 연 것이다. 이른바 사회적 금융의 태동이다.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형태

금융은 화폐나 통화의 유통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다. 사회적금융이란 경제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임팩트금융*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소외계층의 재활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금융은 지속가능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금융의 갈래는 크게 은행,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번 사례돋보기에서는 사회적금융의 의미와 종류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포함하여 금융수익을 넘어 세상에 긍정적 영향력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가치투자를 의미한다.



■ 사회적은행

사회적은행은 대출고객이나 투자대상의 선정 시 사회적 공익여부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는 은행이다. 낙후지역 저소득층,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거나, 불량채권을 매입, 소외계층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투자의 우선순위가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은행과 구별된다.

무함마드 유누스 박사가 설립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사회적은행의 대표적인 사례다. 중노동을 하고도 대부분의 수익을 고리대금업자에게 가져다 바치고 있던 마을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유누스 박사가 돈을 빌려준 것이 그라민 은행의 시작이다. 마을사람 전체가 대부업자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했던 돈은 고작 27달러. 무담보 소액 대출, 마이크로크레디트(미소금융)가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라민 은행은 1998년 이후로 기부를 받지 않고 있다. 대출 전액을 예금에서 조달한다. 예금 중 절반 이상은 그라민 은행 대출 고객의 돈이다. 일반은행에서 거절당했던 빈민들이 그라민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자립해 예금을 유지하는 고객으로 성장한 것이다.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유누스 박사는 신용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난은 가난한 자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빈민은 골칫덩이가 아니라 소비력을 갖춘 잠재적 경제인구라는 것이다. 시장 개척과 고객 유치는 기업이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다. 고객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은 기업들도 주목할 만하다.

■ 임팩트 벤처캐피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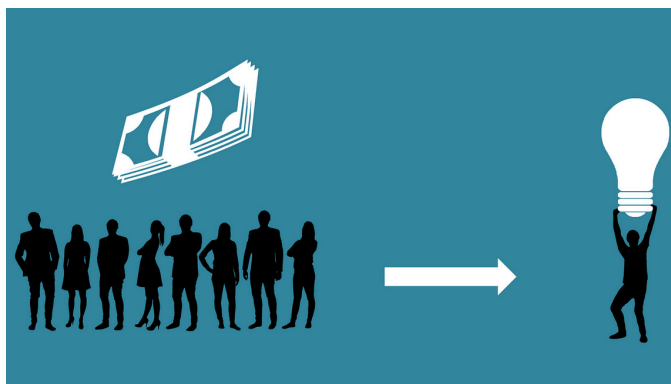
최근 등장하는 스타트업 중 상당수는 수익모델로 사회문제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에 투자하려는 벤처캐피탈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바로 임팩트 투자다. 임팩트 투자를 지향하는 벤처캐피탈은 투자 대상의 선정 기준을 사회적 임팩트에 두고 있다. 기존의 비즈니스로는 풀지 못했던 사회적 난제에 혁신적으로 접근하는 스타트업들을 골라 키우겠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벤처 캐피탈은 대표적으로 옐로

우독, 디쓰리쥬빌리, 에스오피오옌 지 등이 있다.

옐로우독은 2016년 이재웅 다 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가 투자해 설립했다. 현재 11개 기업에 340억 원을 투자한 벤처업체의 큰손이다. 투자 분야도 다양하다. 아프리카 난민촌 아이들도 교과서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에듀테크 기업, '에누마', 자영업자들의 실패 비용을 낮춰주는 솔루션 업체 '심플비즈니스 컴퍼니', 가사도우미 연결 플랫폼 '청소연구소',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업체 '렌딧' 등이 옐로우독의 투자를 받았다.



옐로우독의 포트폴리오 중 렌딧은 대출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대출시장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렌딧의 비즈니스 모델인 P2P금융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을 수 있는 중계 서비스다. 모든 거래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중간 유통업체가 사라지니 금리는 자연히 내려간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예적금이나 일반 펀드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렌딧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출 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상품에서 갈아탄 대환대출이었다. 연 20%대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 대신 렌딧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해 대출자들이 절감한 이자는 59억 7천만 원. 돈이 절박한 사람일수록 비싼 이자를 감수해야 하는 금융업계의 현실에서, 렌딧은 핀테크 기술혁신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클라우드 펀딩**

SNS의 발달은 소수의 목소리를 증폭시켜 영향력을 갖춘 힘으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위안부 할머니를 후원하는 마리몬드의 성공도 기업철학에 공감하는 온라인 여론이 힘을 모아준 것에서 시작됐다. 클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태에 따라 크게 후원형, 지분형, 금융형으로 나누어진다. 후원형은 대개 창작, 문화예술, 사회공익 활동의 아이디어 실현에 기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지분형은 사업 지분의 일부를 투자 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형은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을 돌려주고 추후 이익을 볼

여 돌려받는 방식인데, 투자에 대한 위험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국내 대표적인 클라우드펀딩 사이트로는 오마이컴퍼니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마이컴퍼니는 투자 결과물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돌려받는 후원형과 주식·채권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증권형을 모두 지원한다. 사회 이슈, 문화예술, 여행 등 다루는 분야도 다양하다. 오마이컴퍼니의 펀딩 주체 중 약 80%는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협동조합 등이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들을 후원하는 소셜벤처 마리몬드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자금 마련 프로젝트',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김현호 대한성공회 신부의 '세월호 기억팔찌 캠페인' 등이 있다.



사회적금융, 상생을 위한 마중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융은 늘 비판받아왔다. 손실과 위험은 사회화시키면서 이익은 사유화해왔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고통 받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에도 금융업계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있다. 금융은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혈관이지만, 그 시장경제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금융도 사회와 상생해야만 하는 이유다.

자본주의 4.0,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등,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금융은 그 어떤 정치권력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 시대는 기업에 그랬듯 금융에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의 태동은 그래서 더 반갑다. 상생으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마중물이기 때문이다.

* 자세한 참고자료 리스트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내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리뷰

사회적금융의 나아갈 길 - 선진국 사회적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

- 단기 실적주의에 매몰되었던 현대 금융자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금융허브 국가들은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으며 절망한 투자자들의 자살이 속출했다. 이익은 사유화해왔던 금융이 손실은 사회 전체에 떠넘긴 것이다.

사회적금융은 이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만 돈이 쓰이는 현대 금융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공감대를 이룬 국제사회에서도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주창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사회적금융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사회적금융의 의미와 구성범위, 선진국의 사회적은행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금융의 현대적 의미

사회적금융이란 금융기관의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금융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금 수요자에 대한 대출·투자부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민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임팩트금융과도 혼용되고 있다.

사회적금융의 구성범위

사회적금융은 자금의 ‘수요주체’와 ‘공급주체’ 그리고 양자를 매개하는 ‘중개주체’라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 주체가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형성하면서 활성화되는 양상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들 세 영역이 보조금(grant), 부채(debt),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준지분(quasi equity), 지분(equity) 등 다양한 혁신 금융수단을 통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이 필요한 주체들은 경제활동을 수행하

는 업종이나 조직형태 등에 따라 다른 종류의 금융을 필요로 한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기업들이 의존하고 있는 자금조달원 중에서는 정부나 공익재단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보조금과 기부금의 비중이 가장 높다.

사회적금융에 대한 공급주체들은 사회목적조직(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대하는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성과, 이러한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근거로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 이들은 종전의 보조금이나 기부금 위주의 자금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사회혁신채권 (Social Impact Bonds) 등 새로운 혁신 금융기법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을 후원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요주체와 공급주체를 연결해 주는 중개주체(중개기관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중개주체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와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인수업무를 맡는다. 때로는 자금 공급자들을 대신해 사회목적조직들에게 직접 다양한 형태의 자금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부도 사회적금융의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 사회적금융의 자금유형 제공여부와 참여주체

분야		자금유형				
		보조금/기부금	저리채권	인내자본	시장금리 보장채권	준지분투자/지분투자
수요측	시민단체	○	○	○	×	×
	비영리 기업	○	○	○	○	×
	사회적기업	○	○	○	○	○
거버넌스	공익재단	○	○	○	○	×
	정부	○	○	○	○	×
	개인투자자/기관투자자	×	×	○	○	○

선진국의 사회적은행 운영사례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민간 부문의 사회적금융 실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금융은 운영상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번 리뷰에서는 사회적금융의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은행의 해외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네덜란드

사회적은행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치지향적 은행사업을 위한 세계연합(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이하 GABV3) 멤버 은행 중 하나인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 은행(Triodos Bank: 1980년 설립)을 들 수 있다. 트리오도스 은행은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유기농, 주택공급, 소액금융, 예술기획, 공정무역 등 ‘윤리적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전 세계 43개국에서 74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적 사업분야 선정과 사회적 부가가치 중시의 대출 프로세스를 통해 설립 이후 해마다 14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에 2012년 기준 자산규모는 80억 유로(약 11조 6천억 원)로 설립 당시인 1980년의 54만 유로(약 8억 원)에 비해 비약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윤리은행(Banca Etica: 1999년 설립)은 전문 신용기관(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에 해당)으로 윤리적 저축문화의 조성을 통해 새로운 금융관행을 개척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2012년 말 기준 이탈리아 전역에 16개의 지점을 보유, 전체 조합원은 3만 7천여 명으로 이 중 법인이 5천 500여 개에 달하며, 시민이 대거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행 거래 시 예금자는 자신이 원하는 투자분야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금이자율 역시 스스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출심사 시 대출자와 은행과의 인간적인 신뢰를 가장 중시, 예금고객 가운데 운영 효율성과 윤리적 임팩트를 따져 신용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영국의 대표적인 공익 금융기관인 자선은행(Charity Bank) 역시 윤리은행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주택·사회복지·교육·건강·예술 등의 사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2002년 개설 이후 사회적기업과 거래하여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순이자수익을 실현하였다. 특히 취약계층 대출금리는 2% 정도로 낮으며, 대출 이후 비재무적 컨설팅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거래업체 수는 영국 전역에 걸쳐 개인과 기관을 포함, 1천여 개 이상이다.

트리오도스 은행과 일반 영리은행의 대출 프로세스 비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최종 단계
트리오도스 은행	자금지원 대상 프로젝트가 지속가능 발전 기여 분야인지 규명	재무목표 이상의 사회·문화·환경적 이익 창출 가능성 선별	대출고객의 대출 용도에 따른 대출금 사용여부 면밀하게 검토	선별 프로젝트의 은행 지속 가능성 기준 부합여부 검토	최종 선별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사후관리
일반 영리은행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과 자금조달 방안의 타당성 규명	소요자금의 성향 파악, 운전자금보다 시설자금에 상대적 가산점 부여	자금용도와 상황능력 고려, 여신기간 결정	차입자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등을 감안, 채무상환능력 분석 → 채권보전 강화 및 여신 감축활동 여부 설정	최종 선별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사후관리

자료출처 : 국내 일반 영리은행 기업금융컨설턴트자료 · 트리오도스 은행의 지속가능 금융과 녹색금융 추진사례, 부분인용, 재작성

사회적금융의 국내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존 중소기업·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지원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소금융과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대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실시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사회투자자금을 조성하여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민간재원을 활용한 자발적인 사회적금융은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아직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SNS를 기반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과 투자기준을 사회적가치에 둔 벤처캐피털이 속속 등장하고, 기존 금융업계에서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는 투자 상품들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올해 2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하며 민간의 참여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사회적은행 성공사례는 금융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형 사회적금융은 이제 시작 단계다. 금융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견인하는 사회적금융으로 진화해,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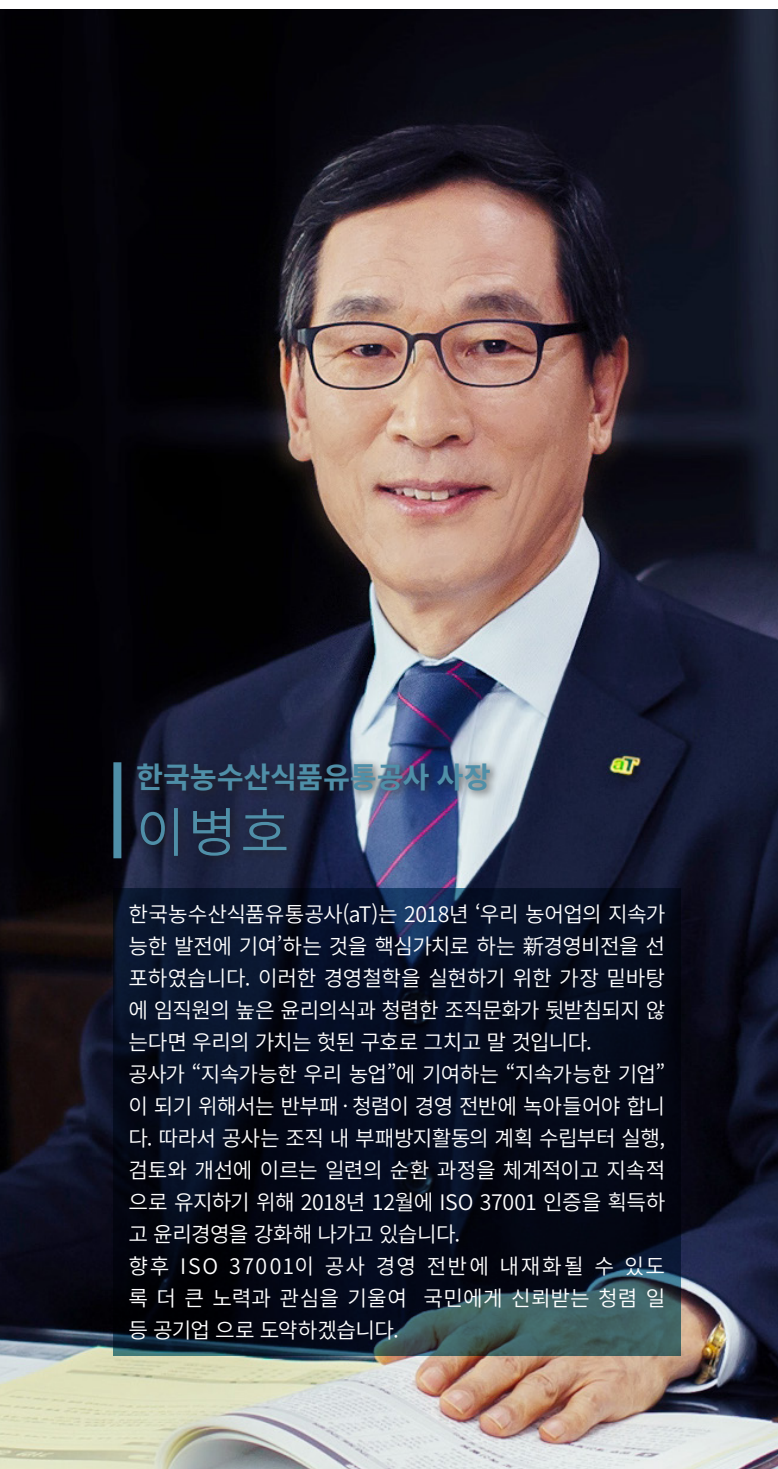
* 참고 - 『금융』 전국은행연합회 발간 (2013), 사회적금융의 나아갈 길



ISO 37001 도입해봅시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례

- 이번 호에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례를 이어 살펴봅니다. ISO 37001 도입 이후의 변화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위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만의 팁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이병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2018년 ‘우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하는 新경영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밑바탕에 임직원의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는 헛된 구호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공사가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부패·청렴이 경영 전반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는 조직 내 부패방지활동의 계획 수립부터 실행, 검토와 개선에 이르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에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ISO 37001이 공사 경영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일등 공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Q1.

ISO 37001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선,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청렴교육과 다양한 제도운영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일부 직원의 부패사건이 발생하였어요. 그 여파로 과거 1~2등급으로 유지되던 공사의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하락했지요. 재발 방지를 위해 부패 통제가 부실했던 부분을 개선하였지만 이 일을 계기로 부패 리스크의 사전적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부패방지활동의 시스템적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다양한 상급기관, 더 나아가서는 국민으로부터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무리 기관의 고유사업 성과가 좋다 하더라도 기관의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관의 평가나 인식이 좋을 리가 없지요. 부패가 사실상 공기업 운영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외부 환경을 인식한 결과, 2017년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던 ISO 37001 인증 시스템을 공사에서도 갖춘다면 반부패활동의 체계화, 내재화 및 대외 공신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2018년 12월에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Q2.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공기업으로서/혹은 업계의 특성상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었거나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인증 요구사항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제 표준을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다보니 용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어요. 자연히 인증 표준의 요구사항과 공사의 부패방지 활동을 매칭하는 것도 감을 잡기 어려웠지요. 이에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ISO 37001 요구사항 이해 및 실무능력 배양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나니 요구사항별로 기준에 우리 조직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새롭게 시행해야 할 활동을 나누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지요. 작년 ISO 37001을 단계별로 소개해주셨던 기업윤리 브리프스의 연재도 인증체계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으로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내부 구성원에게 공감시키는 작업이 힘들었습니다. 공기업의 특성상 반부패 활동에 이미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임직원의 피로감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 여기에도 새로운 제도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고 생각 하니 담당자로서도 부담이 컸어요. 그래도 요구사항의 충족부터 인증심사 절차까지 조직원의 참여와 공감대가 없이는 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조직의 주요 부서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ISO 37001 인증 T/F팀을 발족시켰습니다. T/F팀원을 대상으로 인증교육을 추진하였고, 인증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인 부패 리스크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주관부서인 감사실과 이들 T/F팀원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조직 전체에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갔어요. 그리고 인증이 별도의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는 과정이라는 설득도 병행해 나갔지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무사히 인증 심사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Q4.

도입 예정인 기업에게 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특히 선도적으로 도입한 공기업으로서 타 공기업들에게 주실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기업으로서 ISO 37001인증을 고려하고 있는 타 공기업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시작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시작 전에는 막연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인증 준비를 시작하고 보면 ISO 37001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활동 중 상당 부분을 기존에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공기업 특성상 청렴에 대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고, 정부부처로부터 매년 다양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ISO 37001인증 요구사항의 상당부분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구나 매년 공기업들이 받고 있는 정부경영평가 체계가 P-D-C-A관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같은 개념의 ISO 37001

다음 호에서는 새로운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ISO 37001 도입 과정에 대한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3.

도입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1~2단계에 걸친 인증심사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공사의 부패방지 경영 추진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인증을 준비하면서 처음 시도한 부패 리스크 도출 및 평가의 과정을 통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원들에게는 본인이 맡은 사업의 이해관계자와 그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 발생 가능한 부패 리스크와 통제수단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요. 이러한 과정이 임직원들의 직무에 임하는 자세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기적이고 능동적인 부패 리스크 관리체계가 정착된다면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이해관계자의 인식의 변화도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인증 요구사항에 따라 고객이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의지의 표명이나 소통,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더욱 강화하다보니 공사의 청렴성에 대한 외부의 인식도 높아 지고 있어요. 또한 인증의 대외적인 공신력 덕분에 고객이나 협력회사의 신뢰가 더 커지는 효과도 있고요. 인증 초기단계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향후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 경영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인증 체계에 대한 이해도 빠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관의 부패방지 경영 활동을 인증 요구사항에 맞추어 문서화·체계화하는 작업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만 이루어진다면 인증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O 37001인증은 최초의 인증 획득 보다는 주기적인 사후·갱신심사를 통한 인증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원을 대상으로 ISO 37001 시스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인증절차도 쉽지 않겠지만 시스템의 유지, 정착도 불가능하겠지요. 공기업의 경우, 법으로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정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렴교육과 연계하여 ISO 37001인증에 대한 전사적 교육을 병행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시스템도 결국은 사람의 몫이므로, 조직원의 공감대가 바탕이 된다면 부패방지경영이 조직의 문화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동향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전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7일 오전 서울 성동 한양대에서 제11회 '2019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를 열었다. 37팀 수상자에게는 총 2억여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글로벌성장' 부문 대상에는 국무총리상이, '청소년' 부문 대상을 비롯해 12팀에게는 고용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전국대회 입상팀에게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 금융,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투자유치 등의 후속 지원을 위해 임팩트 투자사와 참가자간 만남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분야별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기업가들의 교류하며 성장하도록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소셜벤처와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를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 참고 - 내일신문, 2019.09.2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6833

한국금융, 임팩트 투자 고도화를 위한 움직임

KDB산업은행이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자회사를 만든다. 산업은행은 재무적 성과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출자 자금을 더해 연내 42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본적인 투자 기준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17가지다. 빈곤 퇴치,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인권, 평화 등이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발맞추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산업은행미래전략연구소는 임팩트 투자에 대해 "자산과 투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며, 실제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위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소극적 의미의 사회적책임투자(SRI)와도 구별된다"면서 "부족한 재정 문제를 해소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주택, 환경, 양극화 등)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팩트 투자를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식하고 있다. JP모건은 이미 2007년부터 임팩트 투자 전문조직을 운영 중이다.

산업은행의 이 같은 행보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국내 금융계의 본격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 - 아시아경제, 2019.10.15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1509522618928>



해외동향

위기의 패스트 패션, 해결책은 지속가능성

글로벌 패스트 패션 산업이 위기다. 지난달 미국 패스트패션 브랜드 포에버21이 파산신청을 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H&M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유니클로 또한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자국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업계는 패스트 패션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단순히 싸고 빠른 옷으로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친환경 패션을 선호한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 역시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내년까지 청바지에 친환경 워싱(물빼기) 공법을 도입하고 H&M은 내년부터 100% 지속가능한 자원에서 만들어진 면화를 사용한다. 자라 또한 2025년까지 면·리넨·폴리에스터 등을 유기농·재활용 소재로 바꿀 계획이다. 불필요한 재고는 줄이고 재활용 비중을 높이는 지속가능성에 패스트 패션의 미래가 달려있는 셈이다.

* 참고 - 조선비즈, 2019.10.0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6/2019100600032.html

제74회 유엔총회, 주요 화두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지난 9월 제74회 유엔총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정상회의(SDG Summit 2019)로 이 자리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58개국 대표가 기조연설을 했다. 130개국의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지구촌 최대 지속가능 총회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딜로이트 등 세계적 기업뿐 아니라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WEF(세계경제포럼) 등 글로벌 최대 기업 플랫폼도 대거 참여했다. 산업계의 화두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ESG(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 경영, 환경경영도 산업계 전반을 이끄는 주요 이슈다.

프라다는 브랜드의 상징인 나일론 대신 에코닐이라는 재생 나일론을 선보였고, 주얼리 명품 브랜드 티파니는 205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제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 참고 - 세계일보, 2019.09.23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23511502?OutUrl=naver>



국내·외 행사

국내 행사

제4회 지속가능경영 비즈니스포럼 THE CSR 2019 | Seoul

2020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키워드(Strategy, Reporting, Analytics)를 중심으로 친환경브랜드, 자원관리, 공급망CSR, ESG평가, 임팩트측정, 소셜임팩트 등 6가지 토픽별 분과세션 진행.

주최 더씨에스알

일시 2019.11.13(수) 9:30~17:30

장소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해외 행사

BSR Conference 2019 - The New Climate for Business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비즈니스 행사. 올해에는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해 조명할 예정.

주최 BSR

일시 2019.11.12 - 2019.11.14

장소 San Jose, California



문화 속 기업윤리

마진 콜: 24시간, 조작된 진실



- 시장논리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다. 돈 되는 곳에 자원이 몰리는 시장논리가 현대사회 발전에 막대한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금융시장에서의 부작용은 특히 더 위험하다. 재무제표에서는 사람의 가치도 숫자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진 콜>은 금융을 시장논리에만 던져두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하루 전날, 월스트리트. 갑작스런 인원 감축으로 퇴직 통보를 받은 리스크 관리 팀장은 MIT 출신 주인공 피터에게 USB 하나를 건네준다. 거기서 피터는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 상사에게 보고한다. 그날 새벽 긴급회의가 소집된다. 남은 시간은 고작 몇 시간. 문제의 파생상품을 팔아넘기지 않으면 회사가 죽고, 팔아넘기면 시장 전체가 죽는다. 내가 죽느냐 나빠고 모두가 죽느냐. 딜레마 속에서 전 세계 최고의 금융 엘리트들은 ‘계산’을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위기를 더 비싼 값에 사줄 희생양을 찾기로 결정한다. 양심의 가책은 없다. 불과 몇 시간 후 휴지조각이 될 파생상품에 전 재산을 투자하라고 유혹하는 것은 기관총을 난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엄연한 ‘합법’이니까.

영화는 시종일관 건조하다. 연쇄도산, 대량해고, 자살, 가족 해체 같은 장면들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다. ‘숫자’와 ‘결정’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더 묵직하다. 금융은 과연 정의로운가? 우리들의 생존에 기여하고 있는가? 생각해볼 주제다.

* 이미지 출처: <https://movie.daum.net/moviedb/photoviewer?id=63311#838549>

지식1G



사회적금융 관련 용어 소개

사회적금융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금융 서비스다.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소개한다.

·미소금융(美少金融)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하는 소액 대출사업을 의미. 영어로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범죄, 빈부 격차, 오염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의 한 형태. 정부가 민간운영업체에 정책 과제를 위탁한 후 민간업체가 정책 수행 목표를 달성하면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실패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투자자들의 투자원칙에 가치와 윤리 신념을 도입해 실행하는 방식. 사회적으로 해로운 계약이나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등 투자의 대상과 방식을 선별한 투자를 의미.

Q1. 사회적금융(혹은 임팩트 투자)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H기업, L선임연구원

단어 자체에서 파악되는 개념은 어렵듯이 알지만, 자세한 개념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사회적금융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식 주에 돈이 필요하듯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금융은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용이 낮은 소외계층이 고리대금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미소금융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임팩트 투자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하니 내심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금융이 유의미한 가치를 가진 좋은 수단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Q2. 사회적금융(임팩트 투자)에 참여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C기업, P과장

평소 문제가 있는 기업의 불매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착한 기업의 제품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투자도 이왕이면 착한 기업에 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 곳이 좋죠. 수익률도 일반상품과 비슷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소액이지만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 같이 신용이 낮아 저금리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법인들에게 저 같은 다수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주는 형태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환경, 문화, 교육 같은 것들이요. 그중에 제가 응원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수익률은 6~8%정도 되요. 시중금리보다 높죠. 어차피 저금리 시대라면, 좋은 일을 하려는 기업을 응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투자도 있다고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Q. 다음 중 이번 호에서 소개한 사회적금융의 사례 중 하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신용이 낮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대출
- ②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 ③ 위안부 할머니를 후원하는 제품의 공동구매
- ④ 은행에서 주관하는 독거노인 봉사활동

독자퀴즈



지난 호 정답자는

이현명 님, **임주혜** 님,
김승희 님, **석현우** 님,
박우진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acrcbusinessethics@gmail.com)

*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시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